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른 만 3세와 만 5세 유아의 정서조절*

김 민 경¹⁾

이 순 형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유아의 연령, 성별, 혼잣말의 발화 여부에 따른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고, 발화 빈도 및 내용과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세 유아 21명과 만 5세 유아 20명에게 혼잣말 발화 허용 및 금지 조건에서 실험과제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변량분석, t 검정,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정서조절은 연령과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과제에서 5세 유아는 긍정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고, 혼잣말 발화 허용 조건에서 정서조절을 더 잘 하였다. 특히 부정정서 표현에서 연령, 성별, 혼잣말 허용 여부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3세의 경우는 여아가 혼잣말 발화 금지 조건에서 부정정서 표현을 많이 하였고, 5세의 경우는 남아가 동일 조건에서 부정정서 표현을 많이 하였다. 둘째, 혼잣말 발화 빈도와 정서조절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발화 내용과 정서조절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혼잣말의 자기조절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인지적 자기조절에 집중되어있는데 반해 이 연구는 혼잣말이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기조절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나 교사는 유아의 혼잣말 사용을 격려하여 자기조절 전략으로서 혼잣말 사용을 교수 방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혼잣말, 자기조절, 정서조절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로 2015년 한국인간발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1)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E-mail: ysh@snu.ac.kr)

I. 서 론

유아의 혼잣말에 대한 관심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유아가 혼잣말을 사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데에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Piaget(1962)는 유아의 혼잣말을 자기 중심적 발화라고 명명하고 전조작기 유아의 인지적 미성숙으로 인한 독백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Vygotsky(1962)는 언어가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는 사고의 도구이며 혼잣말이 자기조절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러한 상반된 두 이론에 대하여 활발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들은 혼잣말이 인지적 자기조절을 촉진시키며, 인지과제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인지과제를 수행할 때 유아의 자발적 혼잣말이 문제해결전략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Berk, 1992; Harris, 1990). 이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혼잣말 발화가 주의집중, 긴장완화, 스트레스 감소, 동기유발 및 인내심 유지 등 자기조절능력을 증가시켜 인지과제 수행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다(박영순, 유안진, 2005; Diaz & Berk, 1995). 그러나 유아의 혼잣말과 인지적 과제 수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Berk, 1992). 몇몇 연구(Azmitia, 1992; Behrend, Rosengren, & Perlmutter, 1992; Duarte & Baer, 1994; Goodman, 1981; Lee, 1998)에서는 유아의 혼잣말 발화 빈도와 과제 수행도, 과제 관련 행동 사이의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지만 다른 연구(Fraenglass & Diaz, 1985)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혼잣말과 과제 수행의 불일치하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방법론상의 문제로 해석하는 연구

자들이 있다(Fraenglass & Diaz, 1985). 이들은 실험 상황에서 유아에게 혼잣말을 큰 소리로 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의 혼잣말 발화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유아에게 과제 수행 중에 혼잣말 발화를 격려하는 지시를 했고 그 결과 지시를 받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의 혼잣말 발화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에서 혼잣말과 과제 수행도 사이의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다. 따라서 혼잣말과 과제 수행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혼잣말이 자기조절과제에서 과제집중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인지과제뿐 아니라 정서조절과제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조절은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의 조절 능력을 포괄하는 다면적 개념이다(Silverman & Ragusa, 1990). 즉, 자기조절 개념에서 보면 인지과제 수행뿐 아니라 정서조절 과제의 수행에서도 동일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기 조절의 한 측면인 정서조절 개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McCoy와 Masters(1990)는 현재의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정서상태의 경험을 유지하는 것을 정서조절로 정의했다. Saarni(1992)는 정서조절을 자기조절 중 내적인 상태와 표현행동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으며, Westen(1994)은 유쾌한 정서를 최대화하고 불쾌한 정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식적, 무의식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조절을 기본으로 강조하면서 대부분 정서의 적응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들은 정서조절이 타인

과의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라고 설명한다(Cole, Martin, & Dennis, 2004; Parker & Asher, 1987). 개인이 정서를 유발하는 경험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회적 적응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정서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부정정서를 줄이고 긍정정서를 증가시킬 수 있는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서조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아동은 부정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게 된다. 특히 분노와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은 건강한 개인 발달과 대인 관계 발달에 중요하다(이지선, 유안진, 1998; Zeman & Shipman, 1997). 또한 정서조절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 불안 등의 증상과 연관되어 학교 적응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한유진, 2005), 유아의 정서조절의 실패는 일시적으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강화하게 되어 과잉행동이나 행동억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ole et al., 2004).

내적 심리적 상태를 외부로 표출하는 정서 표현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신을 보호하고 적응시키는 기능을 한다(Dunn, Bretherton, & Munn, 1987)고 알려져 있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얼굴표정 과제를 통해 정서조절능력을 관찰했는데 Ekman과 Friesen(1975)의 연구에서 얼굴 표정을 통하여 정서 상태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서 유발이 시작되는 때를 식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미소를 짓기 위해 나타나는 안면 근육 동작인 입꼬리가 올라

감, 뺨이 올라감, 눈썹이 내려옴, 눈 주위가 주름짐 등의 얼굴 표정을 긍정적 정서표현으로, 코가 주름지는 것, 험오나 실망으로 눈썹이 내려오는 것, 입을 오므리는 것, 입을 굳게 다무는 것, 실험자와 눈맞춤을 회피하는 것,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 것 등은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측정했다(Butkovsky, 1997; Cole, Zahn-Waxler, & Smith., 1994; Garner & Power, 1996; Saarni, 1979; Simpson, 2002; Zeman & Shipman, 1996).

유아기는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로 Scharfe(2000)에 의하면 유아기에 인지 능력의 발달과 함께 정서표현과 이해력이 급속히 발달하며, 타인에게 의존적이던 정서조절이 자기조절로 전이된다고 한다. 정서의 강도나 정서조절능력에서 개인차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경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대처 기술과 능력도 발달하고 전략과 방법에 대한 범위도 증가하면서 정서조절능력은 발달하게 된다. 3세부터 내적 정서와 다르게 정서를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데 이는 사회인지기술과 관련하여 발달한다고 한다(Cole, 1986; Saarni, 1984). 실망상황을 연구한 Saarni(1984)의 연구에서 1, 3, 5학년 아동 중 1학년 아동이 실망 상황에서 부정적 표현을 더 많이 보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표현을 더 유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연령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한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미취학 유아와 학령기 아동 간의 표현통제에서 연령차를 발견하지 못한 Cole(1986)의 연구와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았을 때 취학 전 유

아가 3학년 아동보다 실망을 가장하는 정서조절능력이 더 뛰어난 것을 밝힌 Simpson(2002)의 연구가 있다. Simpson(2002)은 이 연구결과를 유아가 표현 규칙을 습득하는 초기에는 이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고 이후에 Piaget(1965)의 도덕 규칙과 추론 연구에서 예시된 것처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표현규칙의 사용이 더 유연해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련된 변인으로 성차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정서의 경험 및 표현에서 성차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연구자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의 체험강도와 표현성이 높다고 보고했다(Kring & Gordon, 1998). 또한 정서에 따라 조절능력에 성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아는 남아보다 ‘불안’과 ‘슬픔’을 조절하는데 있어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남아는 여아보다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Zeman과 Garber(1996)는 정서표현과 통제가 성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서조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여아에게서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고, 여아는 남아보다 이런 정서를 표현했을 경우 타인이 자신을 더욱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에 반해서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정서규제와 아동의 정서표출 규칙 이해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이 정서표출 규칙을 이해하는 것에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한유진, 유안진, 1998). 이처럼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남아와 여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의 발달

양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혼잣말의 자기조절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인지적 자기조절에만 초점이 편향되어 왔다. 어쩌면 분노를 억제하거나 욕구만족을 지연시켜야 하는 정서조절에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혼잣말과 정서조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혼잣말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 긴장감의 완화와 문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서적 배출구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Berk, 1992; Zivin, 1972). 정수경(2003)과 Berk(1992)는 과제 비관련 혼잣말도 이를 통해 부정정서를 해소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고 혼잣말이 과제수행과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hiu와 Alexander(2000)는 초인지적 혼잣말을 많이 사용하는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혼잣말을 사용하여 정서를 조절하고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서현과 김영옥(2006)은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유아들이 혼잣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슬픈 정서를 순화시키는 등 자신의 감정의 짐을 덜어낸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을 강화하는 혼잣말을 통해 행동을 조절하는 ‘나를 격려하여 용기 북돋기’와 관련된 혼잣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김은희와 홍용희(2012)는 만4세 유아의 혼잣말의 기능과 사용형태, 혼잣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문화기술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는데 혼잣말에는 정서조망수용능력에 대한 정보도 담겨있으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동기화시켜 나가는지와 관련된 정서조절 능력도 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혼잣말과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혼잣말과 인지적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에 비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자기조절기능이 있다고 추론되는 혼잣말은 인지과제뿐만 아니라 정서조절 과제에서도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혼잣말의 자기조절기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자기조절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Vygotsky의 이론과 후속연구들에서처럼 혼잣말 발화가 자기조절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혼잣말 발화를 억제하는 것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정화(2001)는 혼잣말을 억제하는 조건과 격려하는 조건이라는 두 가지 과제해결조건을 설정하고 혼잣말이 인지적 과제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혼잣말 발화를 억제하는 조건보다 격려하는 조건에서 공간-지각적 과제 수행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혼잣말의 기능을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정서조절 과제 수행 시 혼잣말 허용 및 금지 조건 두 가지를 사용하여 혼잣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혼잣말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혼잣말의 내용이 정서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과제 관련 혼잣말은 보다 과제에 집중시키고 스스로 과제수행 전략을 찾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므로, 과제 관련 혼잣말은 정서과제 수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혼잣말의 과제 관련성 여부를 고려해서 혼잣말의 과제 관련 발화와 무관 발화가 역시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

히려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정서 조절(긍정적, 부정적 정서조절)은 연령, 성별,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유아의 긍정적 정서 조절은 연령, 성별,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유아의 부정적 정서 조절은 연령, 성별,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혼잣말 발화 빈도와 발화 내용은 정서(긍정적 정서/부정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3세, 5세 유아 41명을 연구 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그 중 남아가 22명, 여아가 19명이었다.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을 각 유아의 관찰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세 유아는 평균 44.6개월이고 5세 유아는 평균 66개월이었다.

2. 연구도구

유아의 혼잣말

혼잣말은 자발적인 발화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지 않은 발화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Berk와 Spuhl (1995)의 혼잣말 범주를 Winsler, Leon, Wallace, Carlton과 Willson(2003)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유아의 혼잣말 발화를 측정했다. 혼잣말 범주는 표 1과 같이 혼잣말 발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과제 비관련 혼잣말, 과제 관련 혼잣말, 부분 내면화된 혼잣말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유아의 발화분석의 대상은 실망스러운 선물을 보고 반응하는 사이에 나타난 발화이다. 이때 타인에게 하는 질문이나 발화의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발화단위는 발화가 멈추었을 때, 3초 또는 그 이상의 간격을 둔 문장, 말의 주제나 내용이 바뀔 때, 발화를 수반하는 행동이 바뀔 때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분석한다(Lee, 1998). 혼잣말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10%를 연구자 외 아동학 전공자 1인이 평정하여 평정자 간의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혼잣말 분

석의 일치도는 .98이었으며, 평정자간에 일치하지 않는 발화범주의 경우에는 녹화자료와 전사자료를 근거로 합의하여 결정했다.

정서조절 측정 과제: 실망과제

정서조절은 자신의 긍정적 정서표현이나 부정적 정서표현을 변화시켜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Ekman & Friesen, 1969). 이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을 자신의 정서표현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선행연구(Ekman & Friesen, 1969; Saarni, 1984)를 참고하여, 부정적 감정이 유발될 실망상황에서 정서표출규칙에 따라 부정적 정서표현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정서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선행 연구(Cole, 1986)를 참고하여 긍정적 정서 표현은 기쁨이나 환희 등을 표현하는 밝은 얼굴표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부정적 정서 표현은 화, 슬픔, 혐오, 걱정 등 어두운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은 후 유아가 보인 긍정적, 부정적 표현 점수를 사용하여 긍정적 표현 점

표 1. 혼잣말의 발화범주

범주	하위범주	예시
과제 비관련 혼잣말	단어놀이와 반복	“속속속, 하나둘셋넷”
	과제와 관련 없는 정서표현	“배고프다.”
	상상의 것, 부재인물에 대한 언급	“민지는 안 왔는데”
과제 관련 혼잣말	과제에 관해 설명하기와 명명하기	“색종이가 찢어졌네.”
	계획과 목표를 표현하기	“다시 해야 봐야겠다.”
	과제에 관해 스스로 질문과 답하기	“어떻게 하지?”
부분 내면화된 혼잣말	과제와 관련된 정서표현	“색종이 너무 안 예쁘다.”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 입술의 움직임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거나 입 모양만 움직이는 경우

수가 높고, 부정적 표현 점수가 낮은 경우 정서조절을 잘 한 것으로 본다(김정민, 이순형, 2014; Carlson & Wang, 2007; Cole, 1986; Garner & Power, 1996).

정서조절 측정 과제로는 Saarni(1984)가 고안하고 Cole과 동료들(1994)이 수정한 실패상황을 사용했다. 실험자는 유아에게 8개의 선물을 받고 싶은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했다. 그리고 과제가 끝난 후에 유아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실험자는 오히려 과제가 끝난 후에 유아에게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주었다. 유아가 선물을 보고 반응하는 60초 동안 실험자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모든 과정은 캠코더로 녹화되며 선물을 제시한 후 15초간의 얼굴 표정을 분석했다. 채점은 Cole 등(1994)의 정서표현 범주 기준을 참고했다. 유아의 정서표현 범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채점 방법은 처음 15초간의 얼굴 표정을 1초씩 분할하여 매 1초당 각 얼굴 표정이 나타나면 1점, 나타나지 않으면 0점을 부과한다. 긍정적 정서표현 점수와 부정적 정서표현 점수는 눈·눈썹 부분이 0~15점, 코·뺨 부분이 0~15점, 입부분이 0~15점으로 총 0~45점까지의 범위를 두었다. 15초 분석 시간과 채점방법은 선행연구(박영순, 유안진, 2005; 지경진, 2004)에 근거하여 정했다.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정서표현 자료의 10%를 연구자 외 아동학 전공자 1인이 채점하여 채점자 간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긍정적 정서 표현은 .93, 부정적 정서 표현은 .91의 일치도를 보였다. 관찰자간에 평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표 2. 정서 표현의 범주

범주	내용	점수 범위
긍정적 정서 표현	눈주위가 주름짐	0~15
	뺨이 올라감	
	입꼬리가 올라감	
부정적 정서 표현	안쪽 눈썹이 올라가고 비스듬하게 처짐	0~15
	눈꺼풀이 축 늘어짐	
	눈꺼풀이 좁혀짐	
	눈썹이 내려옴	
	코가 주름짐	
	입술을 팽팽하게 당김	
	입술을 꼭 뭍	
	윗입술이 올라감	
	입꼬리가 내려감	

3. 연구절차

예비조사

유아의 독립과제 수행 상황에서 관찰상황 및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만 3세 및 5세 유아 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앞서 조사 대상 어린이집 교사 및 아동에게 질문을 하여 유아가 좋아하는 선물에 대한 사전자료를 수집하고 선물들을 선정했다. 매력적인 선물로는 여아가 좋아하는 ‘머리핀, 액세서리’ 등, 남아가 좋아하는 ‘미니레고 장난감, 캐릭터 딱지’ 등, 중립적인 선물로 ‘스티커, 풍선, 수첩, 연필, 지우개, 색종이’ 등이 선정됐다. 실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로는 선행연구(Cole et al., 1994)를 참고하

여 ‘부러진 가위, 찢어진 색종이, 두 조각 난 색연필’을 사용했다. 예비조사 결과 매력적인 선물과 매력적이지 않은 선물은 유아의 반응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사용했다. 선물의 개수는 8개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선행연구(지경진, 2004)에 따라 8개로 결정했다. 유아에게 제시하는 선물의 종류는 여아가 선호하는 선물, 남아가 선호하는 선물, 중립적인 선물, 실망을 야기하는 선물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했다.

예비조사 결과 혼잣말의 발화 정도가 개인차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혼잣말 허용 집단 유아와 혼잣말 금지 집단 유아로 나누어 실험하도록 했던 선행연구(Lee, 1998)의 방법을 수정하여 본 조사에서는 동일 유아를 혼잣말 허용 상황과 혼잣말 금지 상황으로 두 번 실험한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정서조절 측정 도구로서 실망과제는 적합한 검사도구로 판단되었으며, 과제수행시간도 적절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 상황에서 유아가 연구자와 카메라를 의식하여 경직되거나 연구자를 향한 발화가 많아지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조사에서 연구자는 실험 중 유아와 조금 거리를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으며, 카메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했다.

본 조사

본 조사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5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21명, 만 5세 20명으로 총 41명(남아 22명, 여아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1차 실험 일주일 후에 동일 유아를 대상으로

2차 실험을 했으며, 과제에 대한 학습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1, 2차 실험에서 유아의 혼잣말 허용 여부의 순서는 무작위로 정했다. 실험상황은 비디오를 통해 녹화했고 실험절차는 표 3과 같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혼잣말 발화를 허용하는 상황의 경우에 혼잣말 발화를 격

표 3.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른 정서조절 측정 실험 절차

순서	절차
1	- 실험자는 유아에게 8개의 선물들의 선호순위를 매기도록 하고 퍼즐게임 후 1순위 선물을 받게 됨을 설명한다.
2	- 실험자는 유아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선물을 종이봉투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여 들고 들어온다.
3	- 실험자는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유아에게 혼잣말 발화 허용 여부에 대하여 설명한다. - “선생님이 퍼즐 정리하는 동안 ○○는 선물을 꺼내 봐도 좋아요 그런데 선물을 꺼내볼 때 (1) (혼잣말 허용) 어떤 친구들은 혼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도 혼자 이야기하고 싶을 때 무슨 말이든 해도 괜찮아요 (2) (혼잣말 금지) 선생님이 퍼즐게임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선물을 꺼내볼 때도 조용히 입을 꼭 다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해요”
4	- 유아가 선물을 꺼내보는 동안 실험자는 중립적인 얼굴 표정을 유지하며 60초간 퍼즐을 건넨다. - 60초가 지나면 유아에게 선물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실수로 선물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유아가 가장 받고 싶어한 선물로 바꾸어준다.

려하는 지시를 했다(Fraenglass & Diaz, 1985).
반면에 혼잣말이 금지된 경우는 과제를 하는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설명했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정서조절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ANOVA), *t*-검증, 쌍체 *t*-검증,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수가 사용됐다.

유아의 정서조절의 전반적 경향

유아의 연령, 성별, 혼잣말의 허용 여부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은 표 5와 같다. 3세 유아 21명과 5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혼잣말 허용 상황과 혼잣말 금지 상황에서 실험과제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에 대하여 살

표 4.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른 3, 5세 유아의 정서조절의 전반적 경향

과제	성별	혼잣말 허용 여부	연령		평균
			3세	5세	
			<i>M(SD)</i>	<i>M(SD)</i>	<i>M(SD)</i>
정 서 조 절	남	허용	1.92(3.83)	4.30(8.07)	3.00(6.09)
		금지	.50(1.17)	.80(2.20)	.64(1.67)
		평균	1.21(2.86)	2.55(6.03)	1.82(4.57)
	여	허용	6.56(9.52)	3.90(3.64)	5.16(6.98)
		금지	3.44(6.19)	.90(1.29)	2.11(4.42)
		평균	5.00(7.95)	2.40(3.07)	3.63(5.97)
	전체	허용	3.90(7.06)	4.10(6.10)	4.00(6.52)
		금지	1.76(4.28)	.85(1.76)	1.32(3.29)
		평균	2.83(5.86)	2.47(4.72)	2.66(5.31)
	남	허용	8.17(5.67)	4.50(4.45)	6.50(5.37)
		금지	11.00(3.98)	10.00(4.78)	10.64(4.23)
		평균	9.58(5.00)	7.25(5.31)	8.57(5.21)
	여	허용	6.78(3.60)	8.10(3.81)	7.47(3.67)
		금지	15.44(11.20)	5.00(5.01)	9.95(9.85)
		평균	11.11(9.22)	6.55(4.62)	8.71(7.44)
	전체	허용	7.57(4.83)	6.30(4.44)	6.95(4.63)
		금지	13.00(7.94)	7.50(5.41)	10.32(7.29)
		평균	10.29(7.05)	6.90(4.92)	8.63(6.30)

해보면, 정서조절능력(0~45점) 중 긍정정서 표현 점수에 대한 3세 유아의 평균은 2.83점, 5세 유아의 평균은 2.47점으로 3세 유아의 긍정정서 표현 점수가 높았다. 부정정서 표현 점수에서도 3세 유아의 평균이 10.29점으로 5세 유아의 평균 6.9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서조절 중 긍정정서 표현 점수에 대한 남아의 평균은 1.82점, 여아의 평균은 3.63점이며, 부정 정서표현 점수에 대한 남아의 평균은 8.57점, 여아의 평균은 8.71점으로 긍정정서 표현과 부정정서 표현에서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혼잣말 발화 여부에 따른 정서조절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서조절능력 중 긍정정서 표현 점수에 대한 혼잣말 허용 상황의 평균은 4.00점, 혼잣말 금지 상황의 평균은 1.32점으로 혼잣말 허용 상황의 점수가 더 높았다. 그러나 부정정서 표현 점수는 혼잣말 금지 상황의 평균이 10.32점으로 혼잣말 허용 상황의 평균

6.95점 보다 더 높았다.

연령, 성별,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른 정서조절의 차이

유아의 정서조절이 유아의 연령, 성별,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 변량분석(3 way ANOVA)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 5, 표 6과 같이 정서조절에서 연령과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정서조절 중 긍정정서 표현에서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F = 5.79$, $p < .05$)를 보였다. 즉, 유아는 혼잣말을 허용한 상황에서 긍정정서를 더 많이 표출했다.

유아의 정서조절 중 부정정서 표현 점수에서는 연령과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중 부정정서 조절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실패과제 수행 중 부정정서 표현 점수가 3세 유아와 5세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7.73$, $p < .01$). 즉, 3세 유아의 부정정서

표 5. 연령, 성별,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른 정서조절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긍정정서)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연령	8.03	1	8.03	.30
성별	67.24	1	67.24	2.53
혼잣말 허용 여부	154.16	1	154.16	5.79*
연령×성별	78.78	1	78.78	2.96
연령×혼잣말 허용 여부	4.93	1	4.93	.19
성별×혼잣말 허용 여부	1.81	1	1.81	.07
연령×성별×혼잣말 허용 여부	6.10	1	6.10	.23
오차	1969.86	74	26.62	
합계	2862.00	82		

* $p < .05$.

표 6. 연령, 성별, 혼잣말 발화 여부에 따른 정서조절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부정정서)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연령	246.88	1	246.88	7.73 [*]
성별	2.81	1	2.81	.09
혼잣말 허용 여부	250.82	1	250.82	7.85 ^{**}
연령×성별	23.32	1	23.32	.73
연령×혼잣말 허용 여부	108.85	1	108.85	3.41
성별×혼잣말 허용 여부	10.91	1	10.91	8.08 ^{**}
연령×성별×혼잣말 허용 여부	258.01	1	258.01	
오차	2364.51	74	31.95	
합계	9330.00	82		

* $p < .05$. ** $p < .01$.

표현 점수가 5세 유아의 부정정서 표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세 유아의 실험자가 존재하는 실험 상황에서 5세 유아보다 부정정서 표현을 더 많이 표출했음을 의미한다.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른 정서조절 중 부정정서 표현 점수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부정정서 표현 점수가 혼잣말을 허용한 상황과 혼잣말을 금지한 상황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 = 7.85$, $p < .01$). 즉, 유아는 혼잣말 발화를 금지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출했다.

한편 부정정서 표현 점수에서 유아의 연령, 성별, 혼잣말 허용 여부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 = 8.08$, $p < .01$)(그림 1)가 나타났다. 따라서 t -검증과 쌍체 t -검증을 통해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표 7에서 3세의 경우 남아들은 혼잣말 발화를 허용한 상황에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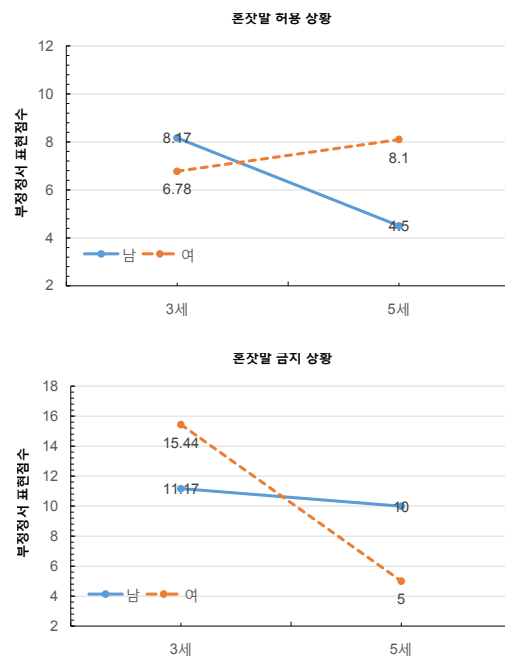


그림 1. 정서조절에서 연령, 성별, 혼잣말 허용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표 7. 유아의 정서조절(부정정서표현)의 단순 주효과 분석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3세	남	혼잣말 허용	12	8.17	5.67	-1.52
		혼잣말 금지	12	11.17	3.83	
	여	혼잣말 허용	11	6.78	3.60	-2.21*
		혼잣말 금지	11	15.44	11.20	
5세	남	혼잣말 허용	10	4.50	4.45	-2.66*
		혼잣말 금지	10	10.00	4.78	
	여	혼잣말 허용	10	8.10	3.81	1.56
		혼잣말 금지	10	5.00	5.01	

* $p < .05$.

정정서 표현의 평균 점수가 8.17점이었으며, 혼잣말 발화를 금지한 상황에서는 11.17점이었다. 3세 여아의 경우에는 혼잣말 발화를 허용한 상황에서 부정정서 표현의 평균 점수가 6.78점이었으며, 혼잣말 발화를 금지한 상황에서는 15.44점이었다. 5세 유아의 경우 남아들은 혼잣말 허용 상황에서 부정정서 표현의 평균 점수가 4.50점이었으며, 혼잣말 금지 상황에서는 10.00점이었다. 5세 여아들의 부정정서 표현 점수는 혼잣말 허용 상황에서 평균 8.10점, 혼잣말 금지 상황에서 평균 5.00점으로 나타났다.

3세 여아의 경우 혼잣말 발화의 허용 여부에 따른 부정정서 표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t = -2.21, p < .05$)가 나타났다. 즉, 3세 여아는 혼잣말 발화를 금지한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았을 때 더 많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했다. 반면 3세 남아의 경우도 혼잣말을 금지한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5세 유아의 경우 남아들이 혼잣말 발화의 허용 여부에 따른 부정 정서표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t = -2.66, p < .05$)가 나타났다. 즉, 5세 남아는 혼잣말 발화를 금지한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았을 때 더 많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했다. 반면 5세 여아의 경우 혼잣말을 허용한 상황에서 혼잣말을 금지한 상황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유아의 혼잣말 발화 빈도 및 내용과 정서조절의 관계

유아의 혼잣말 발화 빈도와 유아의 정서조절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유아의 혼잣말 발화 빈도와 정서조절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혼잣말 발화 내용과 유아의 정서조

표 8. 유아의 혼잣말 발화 빈도 및 발화 내용과 정서조절 간의 상관관계

범주	혼잣말 발화 횟수	발화 내용에 따른 혼잣말의 하위 범주		
		과제 비관련 혼잣말	과제 관련 혼잣말	부분 내면화 혼잣말
정서 조절	긍정정서 표현점수	.24	-.12	.31*
	부정정서 표현점수	-.15	-.18	-.14
				.28

* $p < .05$.

질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의 혼잣말 발화 내용의 하위 범주 중 과제 관련 혼잣말과 정서조절능력 중 긍정정서 표현은 유의한 정적 관계($r = .31, p < .05$)가 있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실망 상황에서 과제와 관련된 혼잣말을 많이 할수록 긍정정서 표현을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혼잣말 발화 내용과 정서조절능력 중 부정정서 표현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유아는 또래나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며 특히 언어적 상호작용은 중요하다. 유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기를 향한 혼잣말을 한다. 유아의 혼잣말은 자기조절 기능이 있다

는 Vygotsky의 관점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혼잣말과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연령, 성별, 혼잣말 허용 여부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혼잣말의 발화 빈도와 발화 내용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 만 3세 유아 21명과 만 5세 20명을 대상으로 혼잣말과 정서조절 과제를 수행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연령과 혼잣말 발화 여부에 따라 다르다. 실망상황에서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보다 더 많은 부정적 정서를 표출했다. 이는 3세 유아의 경우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이나 감사 등의 긍정적 표현을 해야 한다는 정서 표출 규칙을 실망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지경진, 2004; Shaffer,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망을 억제해야 한다는 정서표출규칙에 따라 실망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 표현을 조절하는 능력은 5세 유아에게서 가능한 듯하다. 또한 혼잣말 발화를 허용한 상황에서 유아는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 정서를 표현했다. 유아는 혼잣말 발화를 금지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출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혼잣말의 발화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혼잣말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정서조절 전략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이는 유아가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혼잣말을 사용하여 정서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는 선행연구(김은희, 홍용희, 2012; 서현, 김영옥, 2006; Berk, 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유아의 부정정서 조절능력은 연령, 성별, 혼잣말 허용 여부의 영향을 받는다. 부정정서 조절에 혼잣말의 허용 여부가 3세 유아는 여아의 경우에 민감하게 나타나고, 5세 유아는 남아의 경우에 민감하게 나타난다. 3세 여아의 경우 혼잣말의 허용 여부에 따라 부정정서표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는 3세 여아가 혼잣말 허용 여부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3세 여아는 혼잣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 혼잣말을 할 수 있는 경우보다 실망상황에서 부정정서를 억제하지 못하고 더 많이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혼잣말의 정서조절 기능이 3세 여아에게 남아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는 5세 유아가 혼잣말 발화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남아의 경우는 5세의 경우에 오히려 3세 남아보다 혼잣말의 발화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세 남아들이 혼잣말 발화를 효과적인 정서조절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혼잣말의 발화와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은 연령의 차이와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여아와 남아의 언어발달 및 혼잣말 발달의 발달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아는 3세경에 이미 혼잣말을 정서조절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혼잣말을 하면서 자신의 부정정서를 조절할 수 있었다. 그리고 5세가 되면 혼잣말이 내면화되어 혼잣말을 외부로 발화하지 않더라도 내적 자기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는 여아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인 5세경에 혼잣말을 정서조절의 도구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듯하다.

셋째, 유아의 혼잣말 발화 빈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사이에는 관련이 없다. 과제 수행 중 유아가 혼잣말을 몇 번 말하였는가보다 혼잣말의 사용 여부 및 혼잣말의 발화 내용이 유아의 자기 조절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혼잣말 발화 내용과 유아의 정서조절 사이에는 일부 관련이 있다. 혼잣말 발화 내용 중 과제 관련 혼잣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긍정정서 표현은 정적 관계가 있다.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실망과제에서 과제 관련 혼잣말과 긍정정서 표현 점수 사이의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통하여 유아가 낮은 성인이 존재하는 실망 상황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신을 위로하는 내용의 혼잣말 등을 하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억제하고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자 정서조절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과제와 관련된 혼잣말을 하는 것은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유아의 의지가 나타나며 이러한 혼잣말 발화가 유아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통제된 실험상황에서 유아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자발적인 혼잣말을 통해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실제 유아의 일상생활

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필요한 문제 해결 상황에서의 혼잣말 발화와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과제 수행이나 상황에서 유아의 혼잣말과 정서조절능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혼잣말 발화와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된 유아 개인적 변인들, 즉 지능, 언어발달 수준 등의 영향을 통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3세와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혼잣말과 정서조절의 발달적 경향을 밝혔다. 둘째, 기존의 혼잣말 연구들은 대부분 인지적 자기조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혼잣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즉, 유아의 혼잣말이 정서조절의 도구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과 생활에 주된 영향을 주는 부모나 교사는 유아의 혼잣말 사용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자기조절 전략으로서 혼잣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제 및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수 방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희, 홍용희 (2012). 햇살유치원 만 4세 유아들의 혼잣말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32(1), 107-131.
- 김정민, 이순형 (2014). 유아의 기질이 상황에 따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실험, 어린이집, 가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193-204.
- 박영순, 유안진 (2005). 3세와 5세 유아의 혼잣말과 어머니의 비계설정. 인간발달연구, 12(3), 49-68
- 서현, 김영옥 (2006). 유치원 생활에서 나타나는 유아 혼잣말의 의미. 유아교육연구, 26(3), 83-107.
- 이지선, 유안진 (1998).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이정화 (2001). 과제해결조건 및 과제유형이 유아의 혼잣말과 과제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2), 375-390.
- 정수경 (2003). 유아의 혼잣말과 과제수행능력과의 관계. 아동교육, 12(1), 151-161.
- 지경진 (2004). 실험자 변수에 따른 유아의 정서 표현 및 정서 조절 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 (2005).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77.
- 한유진, 유안진 (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의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 Azmitia, M. (1992). Experts, private speech, and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R. M. Diaz, & L. E. Berk (Eds.), *Private speech: From social interaction to self-regulation* (pp. 101-12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ehrend, D. A., Rosengren, K. S., & Perlmutter, M. (1992). The relation between private

- speech and parental interactive style. In R. M. Diaz, & L. E. Berk (Eds.), *Private speech from social interaction to self-regulation* (pp. 85-10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erk, L. E. (1992). Children's private speech: An overview of theory and the status of research. In R. M. Diaz, & L. E. Berk (Eds.), *Private speech: From social interaction to self-regulation* (pp. 17-5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erk, L. E., & Spuhl, S. T. (1995). Maternal interaction, private speech, and task performance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145-169.
- Butkovsky, L. L. (1997). *The contributions of child temperament and parent socialization practices to preschool-aged children's use of display rule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Carlson, S. M., & Wang, T. S. (2007). Inhibitory control and emotion 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 489-510.
- Chiu, S., & Alexander, P. A. (2000). The motivational function of preschoolers' private speech. *Discourse Processes*, 30(2), 133-152.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 (2004). Emotion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 697-713.
- Cole, P. M., Zahn-Waxler, C., & Smith, K. D. (1994). Expressive control during disappointment: Variations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835-846.
- Diaz, R. M., & Berk, L. E. (1995). A Vygotskian critique of self-instructional training. *Development and Psychology*, 7, 369-392.
- Duarte, A. M., & Baer, D. M. (1994). The effects of self-instruction on preschool children's sorting of generalized in-common task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7, 1-25.
- Dunn, J., Bretherton, I., & Munn, O. (1987). Conversations about feelings, and development of affect 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In J. Garber, & K. Dodge (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eregulation* (pp. 89-108).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kman, P., & Friesen, W. (1969). The repertoire of nonverbal behavior: Categories, origins, usage, and coding. *Semiotica*, 1(1), 49-98.
- Ekman, P., & Friesen, W. (1975). *Unmasking the fa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rairenglass, M. H., & Diaz, R. M. (1985). Self-regulatory functions of children's private speech: A critical analysis of recent challenges to Vygotsky's the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2), 357-364.
- Garner, P. W., & Power, T. G.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 1406-1419.
- Goodman, S. (1981). The integration of verbal and

- motor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280-289.
- Harris, K. R. (1990). Developing self-regulated learners: The role of private speech and self-instructions.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35-49.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86-703.
- Lee, J. H. (1998). The effects of 5-year-old preschooler's use of private speech on performance and attention for two kinds of problem solving task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McCoy, C. L., & Masters, J. C. (1990). Children's strategies for the control of emotion in themselves and others. In B. S. Moore, & A. M. Isen (Eds.), *Affect and social behavior*(pp. 231-268).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J. C.,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iaget, J. (1962).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M. Gavain, Trans.). Cleveland, OH: Meridian, (Original work published 1923)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Y: Free Press.
- Saarni, C. (1979).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 Psychology*, 15(4), 424-429.
- Saarni, C. (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Saarni, C. (1992). Children's emotional-expressive behaviors as regulators of other's happy and sad emotional states. In N. Eisenberg, & R. A. Fabes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55.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 (pp. 91-106). San Francisco: Jossey-Bass.
- Scharfe, E. (2000). Development of emotional expression,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Bar-On, Reuven, & D. A. Parker (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pp. 244-262). San-Francisco: Jossey-Bass.
- Shaffer, D. R. (2000).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sworth.
- Silverman, I. W., & Ragusa, D. M. (1990).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4), 403-435.
- Simpson, D. L. (2002). *The role of culture and gender in children's development of display rules and theory of mind* (Doctoral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 Vygotsky, L. S. (1962). *Thought and language*. In E. Hanfmann, & G. Vakar (Eds. & Trans). Cambridge, MA: MIT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4)
- Westen, D. (1994).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affect regulation: Applications to social-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 62, 641-647.
- Winsler, A., Leon, J. R., Wallace, B., Carlton, M. P., & Willson-Quayle, A. (2003). Private speech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30, 583-608.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 Ze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Reasons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
- Zeman, J., & Shipman, K. (1997). Social-contextual influences on expectancies for managing anger and sadness: The transition from middle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917-92
- Zivin, G. (1972). Functions of private speech during problem solving in preschool children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33(2-B). 1834.

1 차원고접수 : 2015. 10. 09.

수정원고접수 : 2015. 11. 12.

최종게재결정 : 2015. 12. 01.

The Effects of Private Speech on Emotional Regulation in Three- and Five-Year-Old Children

Kim, Min Kyung

Yi, Soon Hyung

Dept. of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rivate speech and emotional regulation. The subjects were 21 three-year-old children and 20 five-year-old children in Seoul and Kyung-gi areas. They were assigned to two different conditions (encouraging and discouraging private speech) and asked to perform a disappointing situation task. The children were videotaped individually during each task.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emotional regulation according to age and the encouragement or discouragement of private speech. Five-year-old children showed more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especially in the encouraging private speech condition. Although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frequency of private speech and emotional regulation,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manifestations of inner speech and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The results supported Vygotsky's perspective that regarded private speech as an intermediate stage in the transition from external social communication to internal self-direction. Moreov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private speech could be an instrument not only for the purpose of guiding cognitive performance but also for regulating one's emotions.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to develop interventions aimed at encouraging children's private speech as a strategy of self-regulation.

Keywords: private speech, self 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